

제5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호스피스 학술대회에 다녀와서

최 대 호 (봉사자 직능 회장)

2001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있던 제4회 호스피스대회에 이어 이번 2003년 3월 5-8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제5회 아·태 호스피스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약 70-8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나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국제 모임에 대한 전문도 넓히고 또한 2005년에는 서울에서 대회가 열리므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되었다.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호스피스 완화간호의 발전과 통합”이다. 세월이 흐르니 그동안 발전된 호스피스 기술을 통합하여 한차원 높인다는 뜻 이겠지 생각된다. 서울대회의 주제도 벌써 제정되어서 이번 대회 등록하는 홀 한쪽에 자리한 한복차림의 여성이 전해주는 칼라 유인물에서 “사회와 삶의 변화”라는 2005년의 표제를 읽고 호스피스의 아름다운 꽃이 서울에서 피어 오름을 머리에 그려본다.

인천 공항을 떠난지 2시간 30분만에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에 도착하다. 지루하지 않게 이웃 일본에 왔는데 나에게서는 처음 오는 곳 이 기도하다. 어릴 때 배운 일본말로 그리 생소하



지 않은 느낌이 든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자 밖에서 한국교포 여성가이드가 상냥하게 우리를 맞는다. 고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일본에서 10년째 여러 경험을 쌓으며 지내었다면서 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그 중에도 모국이 잘 되어야 교포들이 기를 펴고 산다고 하면서 비록 북한 한쪽이 잘못해도 여기 혈육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한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어야겠다.

“리가 그랜드 호텔”에 여장을 풀고 바로 대회장에 가서 등록을 마친다. 개막식이 있을 저녁시간까지 부근에 있는 오사카(大阪)성을 둘러보다. 깨끗하게 단장된 높은 성 건축물이다. 층별로 내부에 차려놓은 역사 전시물을 구경하다. 옛날 우리를 힘들게 한 ‘봉신수길’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예정대로 제5회 호스피스대회 개막식이 시작되다. 각국에서 온 회원들을 기립시켜 인사를 나누게 한다. 35개국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말한다. 개막식 후 시내에 있는 교포 식당에서 함께온 식구들과 저녁을 들며 친교를 나누다.

둘째날 부터 매일 오전, 오후에 있는 호스피스 학술 발표회에 참가하다. 제목에 따라 연구자가 발표하고 이를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영어로 발표하는데 동시통역은 일어뿐이었다. 점심 도시락을 교실에서 먹고 시간을 아껴 강의한 때도 두 번이나 있었다. 오전, 오후

각 휴식시간에는 다과를 즐기면서 참석자간에 친교를 나누다. 날이 갈수록 친근한 사귀의 답소 소리로 더욱 성황을 이루다. 아시아 사람들의 다양함을 보고 세계인들의 더 넓은 세상을 생각해 본다. 이 사람들이 모두 성스런 “호스피스”봉사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의논하고 친교의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날 저녁에는 “만찬과 민속의 밤”이 무대를 갖춘 호텔의 넓은 방에서 열렸다. 대형 원탁에 둘러앉아 요리를 즐기면서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각국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나름대로 준비한 민속 노래나 춤으로 친교하는 시간을 갖었다. 다채롭고도 볼만하였다. 우리 차례가 되자 모두 등단하여 인사와 노래를 선사했다. 한복차림의 여성들이 앞줄을 장식하고 남자들은 뒷줄에 섰다. 우리의 우아한 한복 색깔이 무대를 더욱 밝게 해주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 여기저기서 불꽃을 터뜨린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노래는 물론 “아리랑”이었고, 다음은 “서울의 찬가”를 힘차게 불렀다. 마지막 부분은 “...서울에서 살립니다.”를 “...서울에서 만남시다!”로 고쳐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 내려왔다. 장안에 박수 소리가 꼭 찼다.

넷째날 오전 교육을 마친다. 이제 대회는 오후 호스피스시설 견학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대표의 대회 폐회 인사가 끝나고, 우리 대표에게 바톤을 넘긴다. 소개받은 한국 대표가 올라와 인사를 한 후 2005년 서울 대회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짧막한 영화를 상영하다. 색상도 좋고 산뜻한 한국 소개판이었다. 2005년 서울에서 다시 만남시다!로 박수와 인사를 교환하는 중에 대회는 마감되다. 한국 회원들은 잠시 그 자리에 남아 기관별로 일어서 인사를 교환하고 앞으로 큰 행사를 위해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후 헤어지다.

오후는 오사카 부근의 호스피스시설을 견학

하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가게 되어있다. 티켓은 하루 전날 줄을 서가며 확보한 것이다. 여섯시절 가운데 오사카 서쪽 고베(神戸)에 있는 룩교(六甲)병원 호스피스시설을 택하였다. 버스로 40분정도 가는 도중 좌우 경치를 살피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즐긴다. 병원 이름은 시북쪽의 六甲山에서 따 왔다고 한다. 시설 내부는 병원의 딱딱한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되도록 가정의 온화한 기분을 살려 환우를 돌보는데 필요한 설비와 직원, 봉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좋은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정부가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는데 앞으로 모든 시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호스피스 시설이 되도록 예지를 모아야겠다.

5일간의 일정이 마감되는 날이다. 해외로 나오면 정신차릴 겨를이 없이 시간이 빨리 날라가 버리게 되어 있나보다. 약속한 대로 그 상냥한 가이드 아가씨가 찾아왔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시내로 나온다. 날씨가 좀 싸늘하지만 계획된 것이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구경을 시작하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구경꺼리도 즐겼다. ‘간사이’공항으로 가는동안 버스 안 가이드의 말씀씨가 어김없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맨다. 재미있고 유익된 말을 들려주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가이드와 인사한 후 헤어지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인상에 남을 아가씨다. 부디 뜻을 이루기를 축원한다. 인천 공항에는 밤에 도착하였다. 리무진도 빨리 타야 교통 접촉 시간에 맞는 형편이어서 서로 인사도 간단히하고 정거장쪽으로 헤어져 각자 서울로 향하다. 호스피스 국제 대회에 두 번이나 참가한 것이 나로서는 희안한 사건이다. 서울 행사에서 심부름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많이 보아두는 것이 상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더욱 열심히 배워 일에 쓰임이 되고 싶다. 호스피스 덕분에 하기 어려운 외국 구경도 하고 배우는 보람을 이번 기회에 다시 느껴본다.